

#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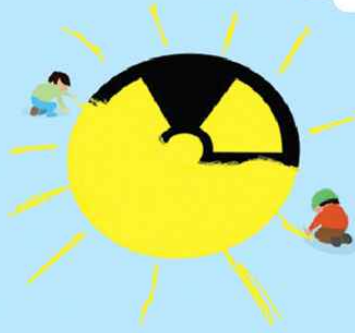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b>아름다운재단</b>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www.beautifulfund.org</a>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싸한홍어</b>	<a href="http://alssahan.co.kr">alssahan.co.kr</a>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a href="http://jeongseongfarm.com">jeongseongfarm.com</a>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b>대게직거래장터</b>	<a href="http://cafe.naver.com/snowcrab09">cafe.naver.com/snowcrab09</a>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b>비타샵</b>	<a href="http://vitashop.co.kr">vitashop.co.kr</a>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궁장사랑</b>	<a href="http://jangsarang.com">jangsarang.com</a>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b>수아비스화장품</b>	<a href="http://www.suavisslab.com">www.suavisslab.com</a>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b>매트리스엠</b>	<a href="http://www.mattressm.com">www.mattressm.com</a>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b>내피알</b>	<a href="http://nepr.co.kr">nepr.co.kr</a>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a href="http://facebook.com/tartfarm13">facebook.com/tartfarm13</a>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b>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a href="http://edamche.com">edamche.com</a>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a href="http://전창걸.com">전창걸.com</a>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a href="http://flowergood.co.kr">flowergood.co.kr</a>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a href="http://cafe.daum.net/7000kim">cafe.daum.net/7000kim</a>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a href="http://wowabalone.modoo.at">wowabalone.modoo.at</a>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우상화 정치과는 결별해야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최순실 일당이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반기문입니다. 그 반기문이 오랜 언어유회를 종식하고 마침내 대선 출마의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반기문의 한계와 무능을 지적한 외신은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봤는지 수구 기득권 언론의 찬사와 기대는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만비어천가가 수준입니다. (여기서 만은 한자로 장어만(鱈)자입니다.)

반기문이 박근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품격이 있다는 점, 공직자 생활 특히 외교 분야에서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박근혜만 아니면 된다는 것 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가르며 부와 기득권을 지배층끼리만 공유하고 대물림하는 구조를 종식하고자 하는 뜻일 것입니다. 곧 더불어 사는 세상의 완성일 테고요.

반기문은 그 정신과 희망을 담아내기엔 너무나 낮은 그릇입니다. 단 한 번도 강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입장에서 서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인전의 주인공이 되고, 동상이 세워지고, 그의 이름을 딴 도로명이 나오는 현상 또한 유치합니다. 영웅을 갈망하고, 신화를 부추기는 정서. 이것은 박정희와 그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든 동력입니다. 뒤집어 노무현을 죽인 맥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위대한 용력이 발현돼 세상이 변형된다는 발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양화된 이익과 다각화된 사회 구조에서 제왕적 리더십이 어찌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신화적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곧 독재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기문에게 그렇게 냉정해야 하듯 야권 지지자들도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지지자, 좋은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아무리 무죄를 우겨봐도 대선 국면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보다 나은 유권자가 전제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돼보도록 합시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 12월 22일(목) 1부 | "박근혜, 보수교회에 맞불 대형집회 요청"

[오프닝] '반기문 영웅신화', '박정희 영웅신화'의 다른 얼굴이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결국! 박근혜, 안종범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도우라"

-특검, "박근혜-최순실 공모해 삼성에서 뇌물 수수" 결론

-"최순실 모녀, 8000억대 재산 숨겨"·독일 검찰 "범죄 조직"

-'청문회 손님' 우병우, 군 고위직 2명 체내고 '자기사립' 꽃아

-김영재 또 수상한 행보·장모 수술 뒤 40분 만에 골프장 행?

[뉴스듣기능력평가]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범행 장소 관련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국방부-연합뉴스 또 성과 땀튀기

-'2016 중국 10대 신조어'에서 박근혜의 한국 두 건 채택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마침내 기본소득을 차기 대통령선거 정책으로 선택한 민주당

[공화국 논평] 탈당한 비박에 대한 강도높은 국가적 중대조치

초장부터 '뇌물죄'로 좁혀가는 특검

朝鮮日報 朴, “물산-모직 합병 도우라”

조선일보 1면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박근혜가 지난해 안중범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합병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 시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밝히기 전이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시하고는 말도 안되고 탈도 많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셈이다. 그리고 삼성은 때를 같이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또한 정유라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이게 뇌물이 아니면 뇌물의 개념을 잘못 정의한 지금 시중에 풀린 사건은 모두 버려야 한다.

東亞日報 “朴·崔 공모해 삼성서 뇌물 받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 박근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삼성에서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는데 박근혜가 공모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를 ‘정부 고위관계자’라고 적었다. 또한 박근혜를 수뢰 혐의 피의자로 대면 조사하기로 했다.

東亞日報 특검, ‘朴 뇌물죄’ 입증 위해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러한 행보는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점을 대전제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첫 영장부터 박근혜를 끌어들었다는 건 박근혜의 수뢰 혐의 적용에 대해서만큼은 퇴로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한 삼성의 돈이 최순실의 독일 회사로 간 것에 대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점을 박근혜와 삼성에 내비친 의미도 있다.

독일과 수사 공조

한국일보 “최순실 모녀, 독일에 8천억 숨겨”

최순실과 정유라가 독일에 8,000억 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독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순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각종 업종의 50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일 검찰은 이 유령회사들을 통해 최순실과 정유라가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8,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검찰도 한국 특검도 가만 안 두겠다는 분위기다.

한국일보 獨 검찰 “최순실 일당은 범죄조직”

최순실과 정유라가 5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액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10여명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조력자들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독일 수사기관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범죄조직의 수괴로 보고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들과 조력자 10여명을 사실상 범죄조직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혜 인생의 종말

東亞日報 ‘정유라 국민 우상 만들기’ 가동

한편 동아일보가 입수한 승마협회 문건에는 ‘승마의 국민적 우상탄생에 적극 후원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한 국민 우상의 예시로는 골프선수 박세리, 피겨선수 김연아가 적시돼 있다. 승마에서는 누구를 우상으로 세우려 했느냐. 정유라다.

중영일보 특검, 정유라에 체포영장 발부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공개했다.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정유라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근거로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더 빠른 길을 찾은 것이다.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유라 느끼는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이 무효화 되면 비자 효력도 사라져 정유라는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 국민우상이 불법체류자로, 명문대생이 중졸로, 나쁜 짓하면 이렇게 된다.

우병우도 인사 전횡

한겨레 우병우, 군에 자기 사람 낙하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인사 전횡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기존의 업무가 겹친다며 방위사업청 김모 법률소송담당관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정수석실을 찾아갔다. 진양현 방위사업청 차장이 김모 법률소 담당관의 유임 의견서를 제출한 것인데, 이에 민정수석실은 진양현 방위사업청 차장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우병우가 방위사업청 차장과 법률소송담당관 등 군 고위 공무원 2명을 강제로 퇴직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우병우는 그자리에 자기사람을 꽂았다.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에 조상준 전 부장검사가 임명된 것인데, 그는 우병우가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일한 '라인' 이다.

청문회 관전 포인트

SBS “조 대위, ‘박근혜 약’ 심부름 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주목받고 있다. SBS의 취재결과 조여옥 대위가 대통령 박근혜의 외부 진료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 대통령 자문직은 대학병원에서 처방된 박근혜의 약을, 조여옥 대위가 여러 차례 청와대 안으로 가져갔다고 말했다. 약 심부름을 했다는 건데, 조여옥 대위는 오늘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다. 물론 현역 군인이라 진실을 말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무리다.

TV조선 김영재 성형, 프로포폴 장사 의혹

최순실의 단골병원 김영재 성형의원은 3년여 동안 프로포폴 4000 병을 사용했다. 성형이나 미용시술 보다는 프로포폴로 장사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고령의 장모에게도 프로포폴 64ml를 처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의료계에선 이를 장부 조작으로 보고 있다. 김영재 원장의 장모는 77세인데 짧은 시간에 64ml를 투여하면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딴 사람 이름으로 해서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남는다.

TV조선 참사 당일 김영재 행적, 여전히 의문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인천공항 고속도로 CCTV 를 확인한 결과 아침 10시 40분에 김영재 원장의 차가 보인다. 아침 9시에 장모를 치료하고 40분만에 병원에서 출발했다는 김영재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해준 것인데, 문제는 장모의 치료 시간이다. 장모에게 허리와 무릎 고관절 주사를 놓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얼굴과 목 피부재생 시술을 했다고 증언했는데 40분 만에 마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장모에게 시술하지 않은 채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정유라를 근혜 딸로 착각한 이유”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 한겨레 김의겸 논설위원의 “정유라를 박근혜 딸로 착각한 이유”다.

“승마 쪽 관련자들은 ‘유라가 엄마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더군요. 그걸 듣고는 ‘아! 친딸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증언했다. 또 ‘삼성이 최순실한테 현찰로 슬쩍 찢러주면 간단하고 깔끔할 텐데, 저토록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삼성이니 ‘출생의 비밀’ 을 아는 거지.’

결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다. 대통령은 20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나쁜 사람’ 이라고 지목할 때는 수첩을 꺼내들고 이름을 말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올해 초 보고서를 읽다가 ‘노태강’ 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따졌다. 나는 그걸 ‘모성에’ 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정유라의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은 최순실을 너무도 빼닮아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호 난 그 다음날, 체육개혁 확실히 하라고 오더 내려왔다’ 는 게 녹취록에 담겨 있는 김종 전 차관의 육성을 보면, 4월17일 팽목항의 시린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정유라를 생각했다는 얘기가 된다. 정유라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애뜻한 존재일까. 분명코 심장은 하나일 터인데, 한쪽은 얼음처럼 차갑고 다른 쪽은 숯불처럼 뜨겁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